

창신세기존부터 쇼케이스까지… 20년간 누적된 세계관·팬덤

르포

던파 페스티벌 2025

창신세기존 중심 세계관 재해석
히스토리존서 20년기록 압축전시
쇼케이스로 신규 업데이트 공개
확장 프로젝트 모아 참여도 강화

20주년을 맞은 ‘던파 페스티벌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넥슨은 확장된 IP·창작 생태계·체험형 프로그램으로 20년 팬덤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던전 앤파이터’(던파)의 오프라인 행사 ‘던파 페스티벌’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던파 페스티벌’은 ‘20th ANNI VERSARY’이라는 부제 아래 20년간의 서비스 여정을 되돌아보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20주년을 맞은 ‘던파 페스티벌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22일 오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픈 시간 전부터 긴 대기열이 행사장 외곽을 따라 늘어선 있었다. ‘2025 던파 페스티벌’ 첫날을 맞아 모험가들은 굿즈백을 어깨에 멘 채 삼삼오오 모여 전시장 입장을 기다렸다. 팬들은 “20주년이지만 큼 이번 행사만은 직접 와보고 싶었다”며 설렘 섞인 표정을 지었다.

입장 직후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곳은 10홀 메인전시였다. 세계관의 기원을 재해석한 ‘창신세기존’과 20년 업데이트 기록을 정리한 ‘History of ARAD’ 전시는 팬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 됐다. 특히 리마스터링 OST가 흐르는 청음 공간에서는 팬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는 모습도 보

였다.

한편 ‘모험가 VS 스노우메이지’ 미니게임존에서는 참여자들의 환호가 이어졌고, 이용자 창작품이 진열된 ‘플레이마켓 시즌7’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페스티벌은 20주년을 맞아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넥슨은 이번 행사를 ‘20th ANNIVERSARY’라는 부제로 꾸미고, 첫날인 22일 밤 겨울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쇼케이스를 배치했다. 쇼케이스는 성승헌 캐스터 진행으로 열렸으며 네오플 박종민 총괄 디렉터가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과 콘텐츠 방향성을 공개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20주년 기념 콘서트, 신규 콘텐츠를 소개하는 ‘콘텐츠 미리보기’, 파랑파핑 미니게임 최강자전 등 다양한 참여형 무대 행사도 이어졌다. 양일간 총 2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시·체험·무대 중심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배치됐다.

특히 올해는 ‘던파 모바일’, ‘카잔’,

‘사이퍼즈’ 등 DNF 기반 프로젝트를 한 자리에 모은 ‘던파 페스티벌 EX’가 별도 공간에서 꾸려졌다. 이곳에서는 DNF IP 기반 미니게임 체험, OST 청음존, 세계관 관계도 전시, ‘월리를 찾아라’ 협업존 등 확장된 콘텐츠 라인업이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치지직 스트리머들이 대거 방문해 현장 무대를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한 이용자는 “20년 동안 해온 게임이지만 이렇게 IP가 넓어졌다는 걸 직접 보니 새삼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박종민 ‘던파’ 총괄 디렉터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20년 동안 모험가들이 함께 쌓아올린 여정 자체에 바치는 헌정의 무대”라고 말했다. 그는 “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콘텐츠 속에서 자신이 ‘던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20년의 기억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브로드밴드가네이버페이,하나은행과 소상공인 상생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오른 쪽부터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SE 담당, 서유석 하나은행 부행장, 이항철 네이버페이 책임리더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B-네이버페이-하나은행 Npay 커넥트 기반 소상공인 지원 맞손

SK브로드밴드가네이버페이,하나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 회사는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기반으로, 통신·결제·금융을 결합한 소상공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Npay 커넥트’는 현금·신용카드·QR 결제·삼성페이·애플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며, 영수증 없이 네이버 리뷰 작성, 쿠폰 발급, 포인트 적립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부가 기능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신규 가입 또는 재약정 소상공인이 단말기를 신청할 경우 설치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및 Btv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는 행은 금융 수수료 및 금리 혜택을, 네이버페이는 결제 인프라와 마케팅 채널을 맡아 소상공인 운영 비용 절감과 매장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3사는 향후 공동마케팅, 지역 기반 가맹점 지원, 통신·금융 결합 혜택 확대 등 단계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든든 인터넷’ ▲한 회선으로 최대 10대까지 이용 가능한 ‘쉐어 인터넷’ ▲인터넷 요금 최대 40% 할인 등이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15세부터 67세까지… AI 활용 능력, 생활기술로 확장

카카오 ‘AI 톱 100’ 경진대회 사회적 난제 대응 등 새 가능성 확인

카카오가 전국의 인공지능(AI) 실력자들과 함께 AI 기반 문제 해결 실험의 첫 발을 내딛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증폭시키고, 일상 문제 해결에서 사회적 난제 대응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예선은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테크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소방관, 농부, 창업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



카카오 AI경진대회 참가자 및 수상자 등 전체 단체사진

/카카오

이 참여했다. 연령대도 15세부터 67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AI 기술의 대중성을 입증했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른 100명 또한 고등학생부터 중년 직장인까지 폭넓었다. 비개발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AI 활용 능력이 특정 전문가 영역을 넘어 생활기술로 확장되

고 있음을 보여줬다.

본선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출제 방식’이었다. 일상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참가자가 AI도구를 활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전임자가 남긴 방대한 자료만으로 새로

운 기획 문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는 과정이 대표적이다.

시상 규모는 총 1억5000만원이다. 대상 1명 3000만원, 금상 2명 각 1000만원, 은상 3명 각 500만원, 동상 4명 각 250만원, 그리고 특별상 총 2500만원이 주어졌다.

/최빛나 기자

‘해킹 여진’ 지속… SKT, 법정공방·대규모 쇄신 단행

배상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
“법적 절차 통해 소명 할 것”
임원 30% 감축 등 조직개편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진이 SK텔레콤을 계속 흔들고 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우려에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임원 30%를 감축하는 고강도 쇄신안까지 발표됐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3일 해킹 피해를

입은 가입자 3998명이 제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총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SK텔레콤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수’를 둔 배경에는 배상 규모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를 입은 2300만명 전 가입자로 배상 요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추산되는 배상금은 최대 7조원에 달한다. 이미 1조원 가량을 피해보상 및 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과거 메타(페이스북) 역시 분조위의 30만원 배상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택한 끝에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각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취한 선제적 보상 조치(분조위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태의 충격은 실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폭락했다. 당기순이익은 1667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8월부터 시행된 통신 요금 50% 감면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이

반영된 결과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예측하지 못한 경영 환경으로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위기 타개를 위해 SK텔레콤은 조직에 칼도 댔다. 임원 규모를 약 30% 감축하고, 통신(MNO)과 인공지능(AI) 양대 축으로 사내회사(CIC) 체제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보안 신뢰 회복을 위해 CEO 직속으로 ‘통합보안센터’를 신설하고 보안 관련 조직 규모를 2배로 늘렸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관제 및 탐지 역량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뼈를 깎는 쇄신과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과를 통해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